



88140119



**KOREAN A: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10 November 2014 (morning)  
Lundi 10 novembre 2014 (matin)  
Lunes 10 de noviembre de 2014 (mañana)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un seul des passages. Les de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어릴 때 아빠는 노을이 지면 가만히 쪼그려 앉아 그걸 바라보는 걸 참 좋아했다. 동구 밖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이쪽 대관령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고, 그러면 멀리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노을이 밀려드는 거야. 조금 전 우리도 봤지만 붉게 산너머로 노을이 밀려오면 하늘은 하늘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붉게 타오르는  
5 바다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가만히 쪼그려 앉아 해는 왜 동쪽 바다에서 떠서 서쪽 산으로 지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해가 질 때 노을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지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저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 (중략)

“예, 낮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잘 때 혼자 방에 누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다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죽어서 몸이 없어져도 정신은 정말 남아 있나, 남아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나, 그런 것들요.”

“아빠도 그랬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무서워져요. 그러다 잠이 들고요.”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15 “어떻게요?”  
“너처럼 그런 생각을 처음 했을 당시엔 잘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가 철학을 하는 마음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철학이 뭔데요?”

20 “뭐라고 말해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네가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는 대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일 수도 있겠고, 우리 정신에 대한 깊은 생각일 수도 있겠고, 또 우주와 우주의 질서에 대한 깊은 생각일 수도 있겠고 ……” (중략)

25 “우리가 죽은 다음 정신도 몸과 함께 없어지고, 또 정신이 가서 살 세상도 처음부터 없고,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 날은 그게 무서워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다 아침에 깨면 이상하게 지난밤에 했던 무서운 생각에서 벗어나고요.”

“그것도 네가 크느라고 그래. 몸만 크는 게 아니라 그 몸 안의 마음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없어진다는 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빠도 그랬다.”

30 “그럼 지금은 아빠한테 그런 게 무섭지 않나요?”  
“너희들이 아빠 곁으로 온 다음엔.”  
“그러면 저희들을 두고 가는 건데도요?”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요?”

35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뭐든지 다 이야기하자. 예전엔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차고 있던 시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아빠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

40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차고 있던 시계가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아빠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하지. 너희들이 있고 너희들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이순원 <아들과 함께 걷는 길> (1996)

- (a) 이 글에 나타난 죽음이라는 소재의 역할과 그 효과는 무엇인가?
- (b) 이 글에서 대화의 흐름과 글의 구성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

땅끝\*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밭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5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10 과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과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15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밭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20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나희덕 <그 말이 있을 물들었다> (1994)

\* 땅끝: 전라남도 남쪽 끝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다

- (a) 이 시의 제목은 시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 (b) 이 시에 사용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의 효과는 어떠한가?